

# 포교 다변화...부부·남성 프로그램 시급

## 2012 불교 신행·포교 결산

2012년 불교 신행·포교는 내실과 외실 모두를 다지는 한해였다. 도심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강좌, 지역법회가 활성화 됐으며, 스마트폰 대중화로 다양한 앱개발을 통한 포교에 나섰다. 또한 여성·어린이·청소년 등 계층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주목을 받았다. 밖으로는 한국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시행 1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를 얻은 것. '힐링' 열풍으로 이효리, 배수지 등 연예인들이 템플스테이 체험을 하면서 일반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외국인들은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한국문화의 긍정적 이미지를 안고 돌아갔다. 올 한해 동안 교계 신행·포교의 패턴은 어땠는지 돌아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자원봉사와 스마트폰을 통한 법문 지원 서비스가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떠올랐다. 또한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원 및 교양강좌가 인기를 끌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랑봉사단의 필리핀 봉사활동 모습/팟캐스트 종교분야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법문스님의 '죽문죽설' 영상/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의 '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강좌/흥국사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미혼남녀를 위한 템플스테이 '산사의 싱글파티'



### 스마트폰 포교 '활발'

신행활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서비스가, 절에 직접 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법회현장을 확인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바쁜 회사생활로 인해 주말 법회 등 각종 법회 참석이 어려운 불자들이 늘어가면서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이용한 법회가 늘어난 것.

서울 삼보사는 스마트폰을 통한 법회 중계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용화선원은 팟캐스트를 통해 초심자를 위한 법어 및, 생활 속의 참선법, 스님의 영상 법문을 실시간으로 업로드 하고 있다. 부산 흥법사 역시 전교 앱을 만들어 흥법사에 관련된 소식을 알리고 법회 영상 등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동국대 정각원은 매주 열리는 법회와 명사들의 강연을 팟캐스트에 업로드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유튜브에서 '정도의 법문 스님',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등을 검색하면 다양한 주제로 법문한 동영상 상을 볼 수 있다.

### 강좌·교육 통한 포교 활성화

전국 주요 사찰 들이 평생교육원을 개원하면서 불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교육 요구 충족과 더불어 포교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 조계사는 3월 평생교육원을 수탁,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기관으로 취업 교육 뿐만 아니라 학점,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정식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사는 마음공부에 중점을 두고 가족·부부·노인행복 캠프를 비롯한 CEO 자유행복 캠프 등 마인드케어(마음치유) 과정을

개설하고 청소년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사 과정 등 교육지도사 양성 과정도 마련한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 4월 '참종은 평생교육원'을 개설해 문학, 미술, 음악, 심리상담사 등 20여 개의 전문 강좌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교육지도자를 양성한다. 최근 통도사도 '마인드케어' '도시'를 양성하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위해 '불교적인 마음산업'을 선도했다.

### 템플스테이 10주년...프로그램 다양화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으면서 내·외국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발간한 '템플스테이 성과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91.2%가 템플스테이를 타인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내국인 역시 81.0%가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녀,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고양흥국사는 취업난·경제난 등으로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매월 '산사의 싱글파티'를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수원 용주사와 해남 미황사, 파주 대원사 등은 산모와 태아를 위한 불교식 태교수업 및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아동·청년·여성 포교 세분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계종 포교원과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실질적 활동에 나섰다. '나를 찾는 선'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것. 교사들이 호흡명상, 마음수련 등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됐지만, 불교색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비불자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포교원은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지역 등 26개 사찰에 불교스카우트 창단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성불자를 위한 교육 열풍도 거셌다. 국제선센터는 '명상과 불교 상담의 기초'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재단은 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 진행해 이 시대 필요한 여성정신에 대해 강의했다. 이 밖에 불교여성개발원은 차세대 글로벌 여성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선센터에서 'GEP(The Way to Be a Global Buddhist Leader)'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불교 중립대학과 사찰서 실시하는 해외봉사 학생들이 큰 인기를 얻었다.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매학기 방학마다 필리핀과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할 학생을 모집했다. 35명의 학생이 선발되는 지원모집에는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할 정도였다. 이밖에 조계사 대학생회, 금강대, 정토회 등이 필리핀·인도 등에서 해외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동국대 손재현 교수(참사랑봉사단 부단장)는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알려주는 최고의 교육이다. 아직까진 불교를 드러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중립학교나 만큼 불교포교를 위한 해외봉사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풀어야 할 과제는 없다

불교계는 부부 관련 프로그램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서 이혼예방센터 및 전문상담 교육을 진행해 온 것이 전부다. 불교는 템플스테이, 명상, 참선 등 대표적인 수행법이 있음에도 부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각 사찰에서도 부부를 위한 법회보다 가족법회·어린이법회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부부보다 가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포교활동이 신도확장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은 "부부관계개선을 위한 법회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찰과 단체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홍보효과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남성불자를 위한 신행활동 프로그램도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남성불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법회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경원 여성개발원장은 최근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교회는 남자들은 변호사·의사 등 직업을 가리지 않고 주차관리 등 봉사활동에 열심인데 절에 오면 여성 불자들 밖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불교 조기교육과 남성들의 신행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 가는 해, 오는 해를 사찰서

## 문화사업단, 기사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개최

이제 2012년도 달력 한 장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다사다난한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을 준비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즈넉한 산사만큼 신년 소망을 기원하기 적합한 곳은 없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에서도 2013년 기사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해맞이 템플스테이에서는 명상을 통해 지난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산과 바다가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찰에서 이색적인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더해준다.

먼저, 명상에서의 새해 첫 일출을 맞는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 강원 속초 신흥사의 '설악산 권금성 해맞이 템플스테이'와 강원 평창 월정사의 '비로봉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에서는 한국의 명산 설악산과 오대산의 맑은 기운과 함께 새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인제 백담사는 동해바다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해돋이,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소망을 담은 발원문을 적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프로그램으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대구 동구 파계사에서는 '그대의 봄을 준비하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사에서 해맞이와 탐돌이, 소망 담은 풍선 날려 보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밤 12시, 사찰 내(內) 제야의 종을 직접 타종해볼 수도 있다.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로 유명한 경기 양평 용문사의 '해맞이 템플스테이'에서는 은행잎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흥미롭다. 천 년의 시간을 간직한 은행나무 앞에 소원을 적거나, 은행나무 잎으

### 해돋이, 소망 기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로 열쇠고리를 만들어볼 수 있다. 사찰식 해맞이 음식을 함께 만들며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그 외에도 강원 영월 법흥사의 '은빛 날개들 찾아라' 템플스테이는 꿈 주머니 만들기, 108염주 꿰기, 새벽 타종을 준비해 참가자들의 새해 소망을 응원한다. 전북 김제 금산사의 '새해 맞이 희망 템플스테이'에서는 소원 등 만들기, 탐돌이, 모악산 해맞이 등산, 내비뷰 콘서트로 유명한 한림스님의 차담도 진행된다.

신종일 기자 mt0179@hyunbul.com

### 해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 상세 안내>

사찰	일정	프로그램	연락처
금성사	12. 29~12.30	명상, 절 수행	02-395-9955
	12.31~1.1	북한산 산행, 떡국 나눠먹기, 주지스님의 만남	
금산사	12~29~12.30	일각스님의 토크쇼, 스님과의 대화, 108배, 송길 명상, 참선	063-542-0048
	12.31~1.1	스님과의 대화, 소원들 만들기, 탐돌이, 모악산 해맞이 등산	
송광사	12.31~1.1	조계산 대장봉 산행과 함께 해맞이 서원 세우기, 예불체험	061-755-0108
파계사	12.31~1.1	소원들 만들기, 참선, 타종식, 새해 건기명상, 풍선연 날려 보내기, 사찰음식(오색떡국, 연말밥) 나누기	053-984-4500
신륵사	12.31~1.1	꽃놀이, 고무마 구워먹기, 행복명상, 소원지 쓰기, 108배, 타종채널, 소원들 띄우기, 동사서 행복은 특강, 10대 행복 마중물, 맑은물 붓기 명상, 새해 비전 세우기	031-885-2505
동화사	12.31~1.1	타종식, 떡국 나눠먹기, 해돋이, 유서쓰기 체험	053-982-0223
월정사	12.31~1.1	스님과의 대화, 탐돌이, 비로봉 산행, 소원통신 날리기	033-339-6606
용주사	12.31~1.1	소원 염주 꿰기, 참회와 정진의 시간, 타종채널, 스님과의 대화	031-235-6886
	12.31~1.1	오리엔테이션, 예불, 다담, 해맞이 산행	
골굴사	12.31~1.1	동해안에서 해돋이, 해맞이 기도 및 선무도 수련, 선무도 공연관람	054-775-1689

## 파라미타청소년, '라오스 지원' 사업 파견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올 해 라오스로 떠난다. 파라미타는 12월 22~31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한국 의료진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정여 스님과 덕조 스님(조계종 포교위원), 송목 스님(포교원 포교부장)을 비롯해 동국대의료원 의료진, 파라미타 소속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파견단을 꾸렸다.

파라미타는 라오스의 비엔티엔 외곽에 위치한 참파마을과 사방마을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들이 활동할 참파마을은 흙파이초등학교와 사방마을 스님 중학교는 대표적인 빈민지역으로 해외구호의 손길이 단 한차례도 미치지 못한 곳이다. 파라미타 파견단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흙파이 초등학교에는 책상 100여 개를 교체하고 중학교에는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어나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승,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친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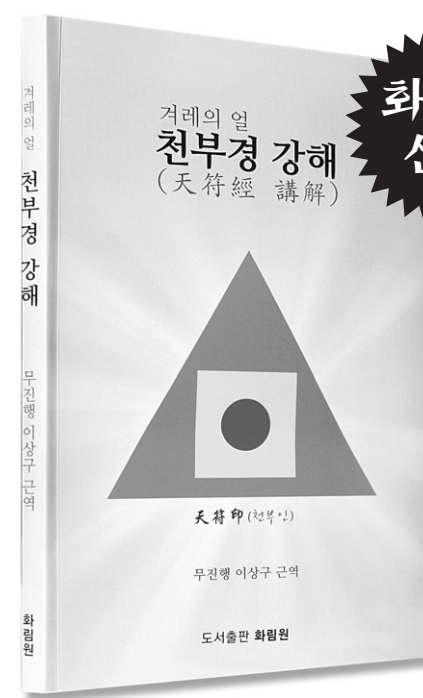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불법수행의 관점에서 본

# 겨레의 얼 천부경 강해 (天符經 講解)

유불선 삼교(三敎)에 능통하신 무진행 스님이 명산 800일 기도중 천부경을 자득하시고 마음의 실체와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고 환희임을 깨달아 부처님 교법으로 명료하게 펴내신 "겨레의 얼 천부경 강해"



**화제의 시간**

이 책의 요점은 천지는 나와 더불어 본래 하나라는 뜻이며 마음은 시공을 초월한 유일자로 불생불멸하며 우주만물의 인식주체로서 마음과 물질이 하나임과 (心物一元)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지혜광명은 그림자가 없어 태양보다 밝음을 자각하고(光明理世) 사람이 천지중에 제일 중하니 남을 도와서 살면(弘益人間) 지혜와 복덕을 구비한 인격자, 즉 성인이 될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경문중 天—地—人—三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인데 이를 깊이 이해하고 수행하면 내면에 기쁨이 가득 차오르고 환골탈태하게 되며, 막힌운이 열리고 아름다워져 살아가 행복하고 임종에 편안하며 사후에 좋은 곳에 날 수 있다"

-경문 중에서 -

무진행 스님 지음 / 정가 12,000원

**구입문의**

02)2272-4398(주간)  
010-2271-4398(야간)

**내용문의**

054)531-3439  
017-336-7933(무진행스님)